

주안에서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10

OCT. 2013 Vol.1 No.2

- 2014 사역국 소개
- 행사 / 포토뉴스
- 기도학교 / 칼럼
- 교육 / 교역자 코너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e-mail: iccc.office1@gmail.com | web: www.in-christcc.org



■ 특별새벽기도

새벽의 땀방울

세리토스채플 예배 셋업팀

세리토스 채플의 주일 아침은 새벽을 가르치는 봉사자들의 땀방울에서 시작됩니다. 봉사자들이 벨리를 비롯한 원근 각지에서 모여든 주일 새벽 6시면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시작되고 예배준비를 위하여 봉사자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은 주안예교회의 미래와 세리토스 채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서로 대화할 틈도 없이 새벽 임에도 땀을 흘리며 준비물들을 셋업하고 점검하는 봉사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한 치의 오차 없는 최고,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또 예배를 돕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하며 기쁨을 얻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고 하며 하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봉사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헌신된 사역에 봉사할 형제님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건강, 젊음, 이 모든 것이 달란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재 벨리 채플에서 안철 장로님을 비롯한 집사님들의 헌신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토스 성도들의 동참으로 속한 시일에 스스로 독립하여 예배가 준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나면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세리토스 채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주일 6:00 AM 세리토스 채플은 형제님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8명 기도의 용사’ ■ 세리토스 채플 첫 기도학교

주안에교회 첫 기도학교가 10월 5일 세리토스 채플에서 오전 8시부터 4시간에 걸쳐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리토스 채플에서 이미 자원한 108명의 성도들은 박동욱 목사, 한대일 전도사, 이현욱 목사의 지도로 4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루한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 내용은 3세션으로 나누어 첫 시간은 박동욱 목사의 지도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사람, 적진을 파하는 공격자의 태도를 갖춘 사람’으로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했다.

둘째 시간은 한대일 전도사가 ‘기도의 조건과 원칙’이란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며,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자의 자세로 임해야 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한 귀한 말씀이었다.

셋째 시간에 이현욱 목사는 ‘기도는 생명줄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기도는 사랑과 희생이다, 기도자는 믿음의 가문에서 나온다, 목사와

교회를 위함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재미있고 쉬운 예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고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했다.

한 순서가 끝날 때마다 참석자 전원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 자신의 변화와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물론 담임목사와 교회의 모든 기관 그리고 환우들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 Anna Kim 기자 |

기도학교를 다녀와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지난 10월 5일 기도학교에 다녀왔다. 담임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시어 말씀을 전하실수 없다는 소식은 참여한 지체들에게 지금 주안에 교회에 왜 기도가 필요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를 선명히 인식시켜 주는 것 같았다. 교육 시작 전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한 지체들이 함께 담임목사님의 건강과 보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육이 시작되었다.

강사로는 박동욱, 이현욱 목사님, 한대일 전도사님이 순서에 따라 각각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 박동욱 목사님은 “하나님은 중보기도 자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야 한다. 둘째, 무너진 곳을 재건한다. 셋째, 적진을 파하는 공격자이다.

한대일 전도사님은 “기도의 주권과 원칙”이라는 주제로 기도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하셨다.

마지막 강사인 이현욱 목사님은 “르비딕 기도회”란 제목으로 기도의 간박성과 합심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장소였던 르비딕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팔을 들을 수 없었을 때 아론과 훌이 피곤한 팔을 붙들어 올려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을 알려주고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처럼 동역해야 할 것을 전하셨다.

진행 시간마다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하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해 본다.

주안에교회가 세워지고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보았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관계없는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임에 틀림없다. 세상의 시기와 질투, 비난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 그리 급하신지 참 빠르게 일하셨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성경 속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세운 자신의 종으로 승리케 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승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

담임목사님은 몇 주 전(9월22일) 주일설교 말씀을 통해 지금 주안의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해야 할 때임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확신을 가지고, 불어오는 은혜의 바람 위에 기도의 뜻을 올려서 그 은혜의 바람이 우리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셨다. 현실의 결정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임을 알려셨다.

이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고



민해 보았다. 혹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며 회개하고, 선포된 말씀과 기도학교에서 가르치신 말씀들에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교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나라의 리더들, 그리고 주안에교회,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려 한다.

나는 소망하며 기대한다. 주안에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을, 그 영광을, 그 승리의 함성 소리를 보게 되며 듣게 될 날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함3:2)



박만규 성도

2014년 주안에교회 사역국

교회 사역을 위하여 사역국이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각 사역국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봉사국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나누고 실천하는 사역국이다. 매주 식사준비 담당 교구와 협력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식사하며 교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물관리국 교회 건물의 관리 및 보수를 담당한다. 밸리채플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잘 유지되고 관리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와 지역사회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보존되도록 노력한다.

시설물관리국 교회가 필요로하는 시설물의 설치, 유지 및 철거 등 전반적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역을 담당한다. 최적의 장소와 효율적 활용의 극대화로 주안에 교회의 시설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되어 성도들이 교회시설을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조경관리국 아름답고 효율적인 교회의 조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보수, 개선한다. 넓고 아름다운 조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소양이 있는 성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배국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답게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적의 예배 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부서이다. 주안에교회는 예배를 최고의 목회비전으로 삼고 있다.

의료국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국이다. 양, 한방 진료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선교활동 시 의료선교팀을 구성하여 선교에 임한다.

전도국 개인 및 관계전도로 예수를 전하고 CD배부 및 다양한 전도방법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교회 성장의 일익을 담당한다. 장단기 전도계획을 수립하고 전교인의 전도자화를 지향하며 모두가 전도의 사명자임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주차국 성도들의 파킹이 원활하고 안전하도록 돕는 일을 하며 ‘주차는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역국이다. 성도들의 주차와 차량의 안전관리 등을 돕는다.

선교국 성도들의 선교인식을 높이며 선교 활동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도록 돕고 선교사, 선교지와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사역국이다. 장단기 선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준비, 계획, 주관하는 사역을 담당한다.

전산국 교회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데이트를 총괄하고 전산업무를 원활히 하여 교회 목회, 행정 및 성도들의 교적, 재정관리를 돕는다. 전산업무 담당 가능자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홍보국 주안에교회 브랜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와 교회들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회의 이미지가 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높일 수 있다.

찬양팀 찬양팀은 예배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예배의 준비 및 예배 찬양을 담당하여 최고, 최선의 예배가 되도록 돕는다. 헌신된 찬양 봉사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11월에 사역축제를 통하여 사역에 헌신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조직을 새롭게 할 예정이다.

2014년 주안에교회 사역국

문화/체육국

교회의 각종 문화행사를 계획, 주관하며 체육활동 및 체육행사를 통하여 성도들의 체력증진 및 유대를 강화하며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 되는 기초가 된다.

문서국

월간 소식지인 '주안에' 뉴스레터를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되도록 하는 매체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며 문서선교의 사명과 함께 교회를 알리고 소개한다.

중보기도국

교회 및 나라와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를 담당하며 기도로 예배와 목회를 돕는 사역이다. 목사님과 환우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국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헌신자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살롬/임마누엘성가대

찬송은 믿음의 꽃이다. 성도의 의무라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는 주안에교회 성가대원 모두는 봉사자가 아닌 직분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예배자의 자세로 사역에 임한다. 많은 찬양 헌신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새가족국

새가족들에게 좋은 인상과 섬김으로 큰 감동을 주며 짧은 시간에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여 해당 구역, 교구, 사역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국이다. 새가족의 등록, 새가족 교육과 담임목사와 함께하는 주안에 만남 등 교회를 안내하고 목회를 소개하는 전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국

교회재정의 계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역국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한다. 교회재정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정리한다. Book keeping과 성도들의 헌금을 계수, 정리하고 수입지출의 결과를 교회에 보고한다.

미디어국

매주 드러지는 예배의 순서 자막과 설교영상을 준비하며 교회의 소개, 행사 및 광고영상, 음향, 방송 등을 제작, 활용하여 예배를 돕는다. 각종 행사 및 예배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경조/구제국

성도들의 결혼과 장례를 돕고 안내하며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일련의 사역을 담당한다. 경조, 구제는 전 성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부

미혼 청년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말씀훈련과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사역국이다. 교회와 학업, 사회생활의 적응을 도우며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도록 안내하고 협력한다. 청년부는 교회의 미래이므로 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주안에교회 청년부는 EM(Hesed)과 KM(코람데오)으로 구성되어 각각 예배와 모임시간을 갖고 있다.

교육국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학교 사역을 돕는 부서이다. 어릴 때부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를 위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에 힘쓰며, 부모들도 함께하여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 성도들의 관심과 기대가 교육부의 성장과 함께 교회의 성장, 미래의 희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세리토스 채플



오늘 받을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안에 윗놀이



“모 한 번, 윗 두 번... 알았지?”

윗놀이 교역자팀



가장 멋진 포즈로...

특별새벽기도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교육부 아웃팅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



교육부

많이 먹어라~



주일에배

세리토스 채플 첫 예배 감격



한어청년부

웃지 않는 사람 누구냐



주님 만나기 전 50미터 앞

주의 자녀들을 거룩한 '예배자' 로 양육시켜

ICCC NEX-GEN IN CHRIST KIDZ MINISTRIES

교/육/부/비/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4)

주안예교회 교육부는 이 시대의 택함받은 리더로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기도이며 바램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최우선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예수님안에서 깊고 성숙하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저희 교육부는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을 극복하는 힘을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예수님 맞이할 그날까지 담대하게 걸어가는 교육부가 될 것입니다.

Vision Statement

It is our Vision, Prayer and Desire for our NEX-GENERATION to become the chosen leaders of this generation. "For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Mat. 22:14)

Our top priority is the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As we edify the church with the Word of God, our church will grow in depth and mature in HIS likeness.

Through the Empowerment of the Holy Spirit our Education Department will learn how to overcome the world by being well equipped as a Soldier of Christ.

Together we can expand the Kingdom of God by spreading the love an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he Nations. We are determined to walk through the narrow gate until we see His face.



영아부 IC BABY / 0세-2세

IC BABY는 0세-2세의 영아들이 엄마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공동체입니다. IC BABY is a place where our babies can worship together with their mommy to grow to know God.

주제 성구(Theme Verse) 주님께서서는 어린 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시편 8:2a)
"Through the praise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established a stronghold against your enemies."(Psalm 8:2a)

사명(Mission) 영아부에는 모든 아기들이 섬기는 분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 부모님이 먼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The mission of IC BABY is to provide a safe, loving, and caring environment where babies can be drawn to God with help from our volunteers, and to empower parents to pastor their own child.

비전(Vision) "주안예교회" 아기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Our vision for IC BABY is to nurture them with God's love to know God.

유아부 IC JOY / 2세-4세

IC JOY는 2세-4세의 유아들이 기쁨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공동체입니다. IC JOY is a safe place where in our toddlers can worship in Joy together with their teachers to grow to know God.

주제 성구(Theme Verse)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잠언 22:6)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turn from it."(Proverbs 22:6)

사명(Mission)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위해 스킷, 드라마, 인형극과 시청각교재를 통해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교육합니다.

The mission of IC JOY is to provide age appropriate biblical teaching and instructions with fun and interactive skits, puppet shows, and dramas where children can be drawn to know the Christ as their personal Lord and Savior.

비전(Vision) 유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It is our vision that the children of IC JOY come to know and rejoice in Christ's love personally.

세상을 이기는 힘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일 예배안내: Cerritos Chapel 10:00AM / Valley Chapel 11:45AM

주중 예배안내: Downey Chapel 목요일 7:45PM / Valley Chapel 금요일 7:45PM



유치, 유년부 IC NOW / K, 1&2 학년

IC NOW는 유치, 유년부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공동체입니다.

IC NOW is a place where kids from Kindergarten-2nd grade will gather to learn about the word of God and to understand with the knowledge from above.

주제 성구(Theme Verse)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But you are a chosen people, royal priests,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You were chosen to tell about the wonderful acts of God,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 Peter 2:9)

초등부 IC Power / 3학년- 5학년

IC POWER은 3학년-5학년의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과 인격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공동체입니다.

Kids will encounter the POWER of our living God through our Worship services and activities. Together with our teachers we can grow to be in His Powerful Word everyday of our lives. (Romans 1:16)

주제 성구(Theme Verse)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1:16)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to salvation for everyone who believes, for the Jew first and also for the Greek.

사명(Mission) 말씀의 기초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며 예수님과 개인의 관계 속에 자라 날 수 있도록 하며 영적훈련(Q.T&성경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교육합니다. The mission of IC NOW is to provide biblical teaching, quiet time and bible verse memorization to draw children to know Christ personally, and living out and experiencing the truth that they are God's royal priests.

비전(Vision) IC NOW의 사역은 어린이들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어린이 제사장"으로 자라나 선교의 비전을 갖도록 교육합니다.

The vision for children of IC NOW is that children come to know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personally, and know that they are chosen as "God's priests" to tell the people about His wonderful acts.

사명(Mission)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위해 스킷, 드라마, 인형극과 시청각교재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교육합니다.

The mission of IC JOY is to provide age appropriate biblical teaching and instructions with fun and interactive skits, puppet shows, and dramas where children can be drawn to know the Christ as their personal Lord and Savior.

사/역/자/소/개

Pastor Casey Lee is the director of education department. Her passion is to lead souls to Jesus by loving, nurturing, and discipling through the Word of God. She is dedicated and committed to serve the body of Christ with the Father's heart to train leaders and to bring out their lives to fulfill God's master plan for HIS glory.

이케이스 전도사는 교육부 디렉터로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제자 훈련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리더들을 양성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역자입니다.



Pastor Casey Lee

NEX-Gen 2013 Schedule

NOVEMBER

11/3 November Birthday

11/10 Talent Presentation

11/24 Thanksgiving Banquet Service

DECEMBER

12/1 December Birthday

12/6 Golden Bell Bible Quiz

12/14 NEX-GEN Christmas Banquet

12/20 NEX-GEN Christmas Presentation

12/22 Christmas Banquet Service

비전(Vision) IC POWER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예수님이 집중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부자입니다. The vision for IC POWER is raising NEX-GEN Leaders through discipleship and training in the word of God. Through many of our dynamic programs and activities, Kidz will meet God personally and learn to live in obedience of His Master Plan.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반응”

어느 날 문득 ‘우리 주안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척 바쁘신 것일까? 아니면 주안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크기 때문일까? ‘어쩔 두 가지 모두일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쏘 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급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1-7)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고린도후서 11:2)

그래! 주안예교회를 다우니에 개척케 하시고 이어 벨리 채플과 연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3개월 남짓한 시간에 세리토스 채플을 허락하시며 우리 주안예교회의 지경을 넓히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본 것 밖에.... 마치 흥해 앞에 섰던 유대민족 앞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출애굽기 14:13,14)하며 외치는 모세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최혁 목사님은 다우니에서는 기초를, 세리토스에서는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안예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신다 해도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인 주안예교회를 사용하셔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감사요, 하나님의 배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귀하고 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위해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일이라 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행함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그 일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또는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며 함께 주님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안예교회는 지금 각 사역구역에서 많은 섬김의 일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반응일 것입니다. 주안예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며...

| 김경일 기자 |

새가족 교육

KEY로 열고 들어가는 자가 되리라

김종성 집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의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맛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안예교회로 인도하심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최혁 목사님과 더불어 주안예교회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성도님들과의 만남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케 해 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지만 내 성격대로 성령의 이슬비를 한 방울, 한 방울 소리없이 내 심령 위에 내리셨고 어느새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 받았음을 가슴깊이 깨닫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눈썰매를 타다 높은 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던 끝에 내리 쏘이며 두 개의 척추뼈가 압박 골절이 되면서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공포의 상태로 누워서 오로지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절실한 생각만 들었을 때 나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아버지의 포스를 이제는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으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합니다.

주안예교회가 세워지고 새가족 교육 과정을 제 1기로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기도란 어떤 것인지, 구원의 확신에 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믿음의 핵심적이며 중요한 부분인 만큼 되짚어 가며 공부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안예교회의 일원으로 적응하고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고 나의 신앙의 길잡이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인도 하시던 구승환 집사님의 생활처럼 항상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늘 가까이 두고 읽기에 힘쓰며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모습을 듣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도전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학습 중에 내게 떠오르게 하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Key’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게 Key를 주셨고 끝날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밖에서 우는 자가 아니라 내 집에 당당히 Key로 열고 들어가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끄럽고 원활한 준비 속에 마친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속에 은혜가 더해졌고 섬김과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수고하신 여러 집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안에 윗놀이로 하나된 교구



추석맞이 첫 번째 밸리체플 교구대항 ‘주안에 윗놀이’가 지난달 29일 200여명의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되었다.

이번 윗놀이 대회는 밸리체플 14개 교구와 코람데오 청년부, 교역자 팀 총 16개팀이 참여하여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었다. 교구별로 화이팅을 외치며 함께 윗놀이를 하면서 더욱 가깝고 하나되는 교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승리한 팀은 함께 기뻐하고, 아쉽게 진 팀은 함께 패배의 아쉬움을 달랬다. 윗놀이를 진행하면서 함께 웃고 교제하며 보낸 시간들이 각 교구와 구역에도 좋은 추억과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사진 촬영으로 수고해 주신 집사님들 덕분에 교구 식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즐거움도 있었다.

이번 윗놀이에는 일반 소형 윗 뿐만 아니라, 손수 제작된 중 대형 윗이 동원되었고, 결승전은 성도들이 윗말이 되어 천교관 바닥을 윗판

삼아 이동하는 장관도 연출되었다. 윗놀이의 결과는 다른 교구들의 양보 속에 교역자팀이 우승하는 이변이 일어났고, 성도들을 향해 미안해 하는 교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준우승은 노스리지 6교구, 3등은 노스리지 4교구, 4등은 우드랜드힐스 1교구가 차지했다. 1차전에서 아쉽게 탈락한 교구들로 진행된 마이너리그에서는 노스리지 2교구가 1등을 차지했다. 최다인원 참가상은 노스리지 1교구가, 응원상은 팽과리와 징, 응원소품을 준비하여 윗놀이 분위기를 한껏 살려준 노스리지 7교구에게 돌아갔다.

선물은 순위에 든 교구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교구들을 위해서도 준비되었고, 모니터와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코풀이 베개 등 푸 집한 경품 추첨도 진행하여, 성도님들이 작은 선물이라도 한 개 이상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 ‘주안에 윗놀이’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교구별로 진행된 첫 번째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교구장님들과 참여해 주신 교구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안에 윗놀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준비위원장과 진행팀, 그리고 주방봉사팀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 행사에 세리토스 채플은 함께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다음에는 각 채플이 함께 또는 따로 즐겁고 행복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현욱 목사 |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섭리하시는 분”

한대일 전도사 (목회디렉터)

할머니로부터 이어 내려온 신앙의 어머니와 그 당시 아직 믿지 않으셨던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을 보며 자란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던 어머니의 부흥 집회와 집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 드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며 모태 신앙으로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미국에 먼저 와 계셨던 삼촌과 함께 있는 동안 교회 다니는 것을 막는 삼촌의 방해와 폭력이 심해지던 어느 날, 삼촌에게 맞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수모와 고통의 자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 당하셨던 자리였음을 깨달아 그 날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현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삼촌에게서 독립을 하게 되었고 네비게이트 제자 훈련에 인생을 걸고 사역 하시던 목사님을 만나 8년 동안 거의 세뇌가 될 만큼 전도와 제자 훈련의 가치를 이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활동하며 LACC 캠퍼스 Bible study 클럽 리더로 자연스럽게 캠퍼스 사역에 가까워졌고 결혼과 더불어 PCC 캠퍼스 Bible Study 모임을 이끄는 자리로 인도 되었습니다.

그후 하나님은 경영하고 있던 비즈니스에서도 팟 타임으로 일하는 학생들과 일대일 또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하셨고 PCC 캠퍼스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주시는 사역의 현장을 조금씩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소그룹 제자 훈련과 청년 사역은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귀부처럼 몸처럼 배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고 계신 비전이라 여기며 청년들과의 울고 웃는 세월과 관계 안에서 청년들은 내가 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과 사역을 열어 주실지 새로이 알게 되는 그 날까지 청년들은 나의 한 부분임을 고백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 동안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레위 인으로의 부르심이 분명치 않아 열심히 사업과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직접 선교사가 되어 나가는 쪽 보다 한 사람

의 선교사를 위해 뒤에서 밀어 주어야 할 열 사람 중 하나가 되고자 큰 포부를 안고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크게 확장시킨 사업이 얼마 가지 않아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힘들게 되었을 때 여러 해 동안 제 마음 속에 떠나지 않고 있던 부르심에 대한 부담이 신학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리라 생각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역의 자리로 부르셔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지금의 제가 있도록 하셨기에 앞으로도 그 선하신 뜻과 섭리가 저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따라 가고자 합니다. 이루실 뜻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루실 분도 그 분이심을 알기에 저의 걸음을 맡깁니다.

타고난 재능도 배경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도록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부르심이 제게는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산책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가 산책’ 이란 칼럼을 맡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서 지내던 때, 먼동이 터오는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의 찬양 모습을(시편 57절 8장)

지그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이처럼 찬양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로써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귀한 영혼의 고백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송가의 탄생동기와 배경,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의미와 내용들을 알고자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찬송가에는 작사, 작곡자의 수많은 사연과 아픔, 고난을 이겨낸 아름다운 신앙적 승리의 간증과 권면이 배어 있고 영감어린 생생한 체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칼럼은 찬송가에 숨어있는 절절한 삶의 간증들이 되새겨봄과 동시에 그 깊은 신앙적 의미를 찬송가의 역사와 탄생배경에서 찾아내어, 보다 진실되고 감동적인 찬양이 우리나라에도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 찬송가(통) 405장



첫 회에 소개할 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의 신앙여정 중 한 번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불러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만큼, 이 곡은 우리의 회개와 감사를 절절히 고백하며 은혜 받음으로써 환희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특히 백파이프 연주버전이 아련히 귓전을 맴돌게하는 찬송가입니다.

작사자는 영국 런던 출생의 성공회 사제인 “John Newton”(사진, 1725-1807)이고 작곡자는 미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혹은 스코틀랜드의 민요로 불려졌다거나 잉글랜드 고대왕국이었던 Mercia에서 왔다. 또는 19세기 미국 남부에서 작곡되었다고 하는 등의 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인디언 체로키(Cherokee) 족의 노래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정설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들어 와서 그 경건하고 숙연한 멜로디가 뉴턴이 작사한 이 Amazing Grace와 접목되어 기독교 교회나 종교의식 등에서 널리 불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통일 찬송가에 “찬송가 405”로 정식수록 되었고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가사는 원본 번역과는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의역되어 우리와 친숙하게 된 가사입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의역되어서인지 마치 우리 자신의 고백인양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하게 되어 절로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작사자 존 뉴턴의 삶과 신앙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계속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는 그의 자전적 삶을 기사화한 것이며 회개를 통해 구원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놀라운 일들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 서세건 기자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오전 8:00, 10:00
밸리채플/ 오전 10:00, 11: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저녁 7:45 다운니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다운니채플/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다운니채플 10629 N. Lakewood Blvd., Downey CA 90241
비전채플 8531 E. Florence Ave. Suite #100, Downey, CA 90241
세리토스채플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